



# [대한국사-윤승규]

## 2017년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책형)

### 총 평

2017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은 올해 출제된 경찰직이나 서울시 사회복지직 문제에 비해 너무 난이도가 떨어져 변별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시대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에서 1문항, 고대사(삼국 ~ 남북국)에서 2문항, 중세사(고려)에서 4문항, 근세사(조선 전기)에서 1문항, 근대 태동기(조선 후기)에서 3문항, 조선 시대 통합 1문항, 근현대사의 한말에서 6문항, 일제 강점기(독립 운동)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근현대사에서의 출제 비중은 8문항으로 최근 7~8년간의 강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적어도 수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류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선사를 포함한 정치사의 비중이 11문항, 경제사 2문항, 사회사 2문항, 문화사 4문항, 지역사 1문항이 출제 되었다. 이를 분석해보면 압도적으로 정치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문화사의 비중이 높으며 경제사와 사회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어 난이도가 너무 내려갔다는 점이다. 무려 19문항이 정답을 고르기 수월한 문항이었으며, 1문제만이 조금 낮은 정도였다. 대체적으로 가장 난도가 높았던 문항은 고려시대 의주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의주의 위치가 청천강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또한 독도 문제는 다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 출제되었으나 간도와 관련된 인물이나 협정을 알면 답이 보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굳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시험으로 9급 국가직 한국사의 변별력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의 학계 경향이나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시대적으로도 동떨어진 문제 출제 방식이라 혹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가에서 출제하는 시험의 유형은 전반적으로 한국사 인증 시험 및 수능 시험 유형을 많이 참고하고 있으며, 단순 암기형의 문제는 철저히 지양되고 중요사건의 순서나 연관된 시대 상황 및 역사적 사실, 시사적 특성과 연계된 문제가 많은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이러한 특성에도 매우 동떨어져 있어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 문제 유형 분석

| 분류    | 문항 수     | 내용   |                       |
|-------|----------|--|-----------------------|
| 선사 시대 | 1        | • 동예   |                       |
| 정치사   | 고대       | 1 • 고구려의 발전 과정   |                       |
|       | 중세       | 1 • 우왕 시기의 사실(화통도감)  |                       |
|       | 근세~근대태동기 | 2 • 정도전<br>• 조선 시대의 시기별 사실   |                       |
| 경제사   | 고대       |  |                       |
|       | 중세       | 1 • 고려 후기의 경제 상황(소은병)  |                       |
|       | 근세~근대태동기 | 1 •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                       |
| 사회사   | 고대       | 1 • 6두품  |                       |
|       | 중세       |  |                       |
|       | 근세~근대태동기 | 1 • 오가작통법  |                       |
| 문화사   | 고대       |  |                       |
|       | 중세       | 1 • 풍수지리 사상  |                       |
|       | 근세~근대태동기 | 1 • 홍대용  |                       |
| 근현대사  | 한말       | 6 • 갑신정변 이후 국내외 정세<br>• 1898년 이후의 사실(현의6조)<br>• 한국군 해산 조칙(1907) 이후의 상황<br>• 국권 피탈 과정<br>• 하와이의 민족 운동<br>• 독도 |                       |
|       |          | 일제   | 2 • 국민 대표 회의<br>• 손진태 |
|       |          | 현대사  |                       |
|       | 통합형      | 1 • 고려시대 의주  |                       |

### 문제 및 해설

문 1. ㉠과 ㉡ 두 인물의 공통된 신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 은(는)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통하여 조연하였다.  
 ㉡ 은(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 ① 관등 승진에서 중위제(重位制)를 적용받았다.  
 ② 중앙 관부의 최고 책임자를 독점하였다.  
 ③ 자색(紫色)의 공복을 착용하였다.  
 ④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다.

정답 ① (2017 필기의 정석 142쪽 / 대한국사 764쪽)

※ 제시문의 ㉠은 설총, ㉡은 최치원으로 모두 6두품에 해당한다.

- ㉠ 신라 중대의 유학자인 설총은 유교 경서와 이두를 정리하는 한편, '화왕계'를 저술하여 신문왕에게 바쳤다.  
 ㉡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6두품 유학자인 최치원은 빈공과에 급제한 이후 당에서 활약하다가 귀국하여 진성 여왕에게 개혁안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① 신라는 골품제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아찬·대나마·나마에 중위제를 두었다. 6등급인 아찬은 사중아찬까지, 10등급인 대나마는 구중대나마까지, 11등급 나마는 칠중나마까지 진급시켰다.

#### 오답풀이

- ②, ③ 진골에 대한 설명이다. 진골은 정치·군사 정권을 장악하고 5관등(대아찬) 이상의 요직을 독점하여 집사부의 장관직인 중시(시중)나 각 부의 장관직인 영(승)은 진골만이 할 수 있었다. 금관가야 왕족의 김유신계와 고구려 왕족 안승 등을 받아들였으며, 무열왕(김춘추) 이래 진골 김씨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④ 성골에 대한 설명이다. 성골은 왕이 될 수 있는 최고 신분으로 진덕 여왕을 마지막으로 성골은 단절되었으며, 진골인 김춘추 계열에서 왕위가 배출되었다.

문 2. (가)~(다)는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 낙랑군을 차지하여 한반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   
 (다)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였다.

————— < 보 기 > —————

- ㄱ. 태학을 설립하였다.  
 ㄴ.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ㄷ.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ㄹ.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② (2017 필기의 정석 35쪽 / 대한국사 139-140-146쪽)

- ※ (가)는 미천왕 시기의 일이다. 고구려는 313년에 낙랑군을 공략하여 멸망시켰다.  
 (나)는 고구려 장수왕 시기의 일이다. 고구려 장수왕은 427년에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이후 455년에는 백제의 왕위 교체 틈을 이용해 백제를 공격하였고, 475년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전사시켰으며, 백제의 도읍을 웅진으로 옮기게 하였다.  
 즉 (나)는 미천왕 시기인 313년에서 장수왕 시기인 427년 사이의 시기를 말한다.  
 ㄱ. 소수림왕은 372년 유교 교육 기관인 태학(太學)을 설립해 귀족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치면서 유교 이념의 확대를 도모하고, 중앙 집권적 정치 체도에 적합한 관리를 양성하였다.  
 ㄷ. 광개토태왕은 400년 왜구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원함으로써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410년 동예를 통합하면서 신라와는 하슬라(何瑟羅)를 경계로 삼았다.

#### 오답풀이

- ㄴ. 고국천왕 시기인 194년 진대법을 실시해 궁핍한 농민들에 대한 구휼책을 마련하였다.  
 ㄹ. 영류왕은 당과의 평화가 한시적인 상황으로 끝날 것을 우려, 631년부터 비사성에서 부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하였다. 천리장성은 착공한 지 16년 만인 647년(보장왕 6)에 완성되었다.

문 3. 다음 제도를 시행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은?

○ 무릇 민호(民戶)는 그 이웃과 더불어 모으되, 가족 숫자의 다과(多寡)와 재산의 빈부에 관계없이 다섯집마다 한 통(統)을 만들고, 통 안에 한 사람을 골라서 통수(統帥)로 삼아 통 안의 일을 맡게 한다.

○ 1리(里) 마다 5통 이상에서 10통까지는 소리(小里)를 삼고, …(중략)… 리(里) 안에서 또 이정(里正)을 임명한다.

- 『비변사등록』 -

< 보기 >

- ㄱ.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 방지
- ㄴ. 부세와 균역의 안정적인 확보
- ㄷ.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 활성화
- ㄹ. 향권을 둘러싼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 억제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2017 필기의 정석 78-122쪽 / 대한국사 574쪽)

☞ 제시문은 오가작통법에 대한 사료이다. 오가작통법은 『경국대전』에 실리면서 법제화 되었고, 1675년(숙종 1) 윤희의 건의로 비변사에서 오가작통사목 21개조를 제정하면서 다시 전국적으로 재실시되었다.

ㄱ, ㄴ. 오가작통법과 면리제 시행은 국가 차원에서 농민의 유랑을 방지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며, 부세와 균역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일종의 편호 조직과 그것을 확대한 것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ㄷ. 유희소, 또는 향약에 해당한다. ㄹ. 오가작통법은 향전과는 관계가 없다.

문 4. 다음 발의로 개척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현시키고 상하이 일대의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제창하고 있다. …(중략)… 근본적 대해결로써 통일적 제조를 꾀하여 독립운동의 신국면을 타개하려고 함에는 다만 민의뿐이므로 이에 ㉠의 소집을 제창한다.

- ①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 ②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이 채택되었다.
- ③ 한국국민당을 통한 정당정치 실시가 결정되었다.
- ④ 창조파와 개조파 등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정답 ④ (2017 필기의 정석 261쪽 / 대한국사 1195-1197-1273-1274쪽)

☞ 사료는 1921년 2월에 발표된 ‘아 동포에게 고향’의 일부 내용이다. 이 선언은 당시 임정의 무능을 비판하고 분열을 종식시키고자 제안된 것으로, ㉠에 들어갈 내용은 국민대표회의(1923)이다.

④ 국내외의 독립운동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신숙·신채호 등 무장독립군자들이 주축이 되어 회의가 소집되었으나, 임시 정부 해체와 새로운 정부 수립 주장의 ‘창조파’와 임시 정부 내부의 체제 개혁을 주장하는 ‘개조파’의 대립이 극심하였고, 결국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오답풀이

- ①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한 단체는 신한청년단이다. 1919년 김규식이 파리에 도착했을 당시는 신한청년단을 통합한 상해 임시 정부가 결정된 후였다.
- ② 삼균주의는 1941년 임정의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서 기본 이념 및 정책 노선으로 채택되어 공포되었다.
- ③ 한국국민당은 1935년에 민족 혁명당(의열단+ 대한독립당+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에 합류하지 않은 임정 세력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단체이다.

문 5.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       |       |       |       |
|--------|-------|-------|-------|-------|
|        | (가)   | (나)   | (다)   | (라)   |
| 연산군 즉위 | 중종 즉위 | 효종 즉위 | 영조 즉위 | 정조 즉위 |

- ① (가)-현량과를 실시하였다.
- ② (나)-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 ③ (다)-두 차례에 걸친 예송이 일어났다.
- ④ (라)-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정답 ③ (2017 필기의 정석 80-93-94-97쪽 / 대한국사 420쪽)

☞ (가)는 1494년(연산군 즉위) ~ 1506년(중종 즉위), (나)는 1506년(중종 즉위) ~ 1649년(효종 즉위), (다)는 1649년(효종 즉위) ~ 1724년(영조 즉위), (라)는 1724년(영조 즉위) ~ 1776년(정조 즉위)이다.

③ 예송 논쟁은 현종 시기의 일이다. 기해예송은 1659년에 효종이 승하하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조대비)의 복제 문제가 쟁점이 되어 일어났는데, 기년설을 주장한 서인이 승리하여 집권하였다. 2차 예송은 갑인예송으로 1673년(현종 14) 인선왕후(효종비)가 죽자 생 존한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 기년설을 주장한 남인이 승리하였다.

오답풀이

- ① 현량과는 중종 즉위 후에 조광조의 건의로 실시되었다.(필기의 정석 91쪽)
- ② 연산군은 1498년(연산군 4)의 무오사화와 1504년의 갑자사화를 일으켜 많은 사류(士類)를 희생시키는 참극을 벌였다.(기본서 359쪽)
- ④ 정조는 1791년 신해통공을 실시하여 금난전권을 혁파하였다.

문 6.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神)으로 여겨 제사지낸다. 음력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는데, 이를 책하라 한다.

- ① 후읍군삼로 등이 하호를 통치하였다.
- ② 국읍마다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있었다.
- ③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한 다음 뼈만 추려 목곽에 안치하였다.
- ④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정답 ① (2017 필기의 정석 29쪽 / 대한국사 104쪽)

☞ 자료는 동예의 풍속에 대한 내용이다.

① 동예는 옥저와 더불어 정치적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왕이 없고, 각 부족은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들에 의해 통솔되었다.

오답풀이

- ② 삼한의 여러 나라는 대체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천신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인 천군이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 ③ 옥저의 풍속인 골장제, ④ 변한 및 가야의 풍속인 편두에 대한 설명이다.

문 7. 다음 건의문이 결의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전체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 ① 서재필을 중심으로 민중 계몽을 위한 독립신문이 창간되었다.
- ②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 ③ 황제권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 ④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정답 ③ (2017 필기의 정석 233-234쪽 / 대한국사 1026-1028쪽)

☞ 자료는 관민 공동회가 발표한 헌의 6조(1898)의 내용이다. 독립협회는 진보적인 관료들을 중심으로 개혁 내각을 수립하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민선 의회를 설립해, 국정 전반에 걸쳐 근대적 자강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독립협회는 이를 위해 만민 공동회에 관리들을 참여시켜 관민 공동회를 개척하였다.

③ 고종은 자주독립을 지키고 근대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시도 하에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원수부(1899~1904)를 설치하고 황제 호위부대를 증강하였다.

오답풀이

- ① 서재필은 자유주의·민주주의를 보급하고 국민의 힘으로 완전한 독립 국가를 이루려는 목적에서 1896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 ② 을미사변 이후 신변에 불안을 느낀 고종은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경복궁을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겨 갔다.
- ④ 온건 개화파 중심의 군국기무처에서 주도하여 제1차 갑오개혁(1894. 7.~1894. 12.)이 추진되었다.

문 8. 밑줄 친 ‘이 기구’가 설치된 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정은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 이 기구를 두고, 대장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하였으며,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 ① 복원궁을 건립하여 도교를 부흥시켰다.
- ②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다.
- ③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 ④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정치를 구현하였다.

정답 ② (2017 필기의 정석 195쪽 / 대한국사 274-753-872-873쪽)

☞ 자료의 밑줄 친 ‘이 기구’는 ‘화통도감(화약국)’이다. 화통도감은 우왕 시기인 1377년에 최무선의 건의에 의해 설치되었고, 이로인해 화약과 각종 화기의 제작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이 시기 제작된 무기들은 1380년의 진포 싸움과 1383년의 진도 싸움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② 보물 제1132호인 직지심체요절은 고려의 승려 경한이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이다.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하였으며, 본래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하권만이 유일하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오답풀이

- ① 복원궁은 고려 예종 때 건립되었다.
- ③ 선종은 송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의천이 불경과 경서 1천권을 바치며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세울 것을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1086년에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였다. 의천은 송·요·일본 등지에서 거의 4천여 권에 달하는 불교 관계 서적을 구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장(속장



경)을 간행하였다.

- ④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정치를 구현한 왕은 성종이다.

**문 9. 갑신정변 이후 국내외 정세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의 영세 중립국화를 건의하였다.
- ②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응하여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 ③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나라 상인에게 통상 특혜를 허용하였다.
- ④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답 ③ (2017 필기의 정석 225쪽 / 대한국사 997-1000-1005쪽)**

☞ 갑신정변은 근대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1884년 12월에 급진 개화 세력이 일으킨 사건이다.

- ③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음력 1882년 8월 23일, 양력 10월 4일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 및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조선과 청의 종속 관계를 명문화하였고, 청국 상인들에게 내지 통상권 및 거주·여행·영업 등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오답풀이**

- ① 조선을 사이에 둔 열강들의 대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당시 조선주제 독일 부영사인 부들러는 한반도의 중립을 건의했다.(1885. 3.)
- ② 1884년, 조선은 러시아와 독자적으로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고, 1885년에는 비밀리에 비밀협약을 맺으려다 청에 탄로나 조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거문도를 점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 ④ 텐진조약은 양력 1885년 4월 18일(음 1885. 3. 4.)에 체결되었다.

**문 10.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 ① 이범윤의 보고문-은주시청합기
- ②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삼국협약지도
- ③ 미쓰야 협정-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 ④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임명장

**정답 ② (2017 필기의 정석 235쪽, 대한국사 1032쪽)**

☞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는 『삼국사기』의 기록(이사부의 우산국 정복, 신라 영토 편입), 『고려사』(지리지 울진현) 조세 징수 기록, 『태종실록』(쇄환 정책),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신증동국여지승람』), 『숙종실록』(안정복의 1·2차 도일 기록), 조선의 이주 정책(1884),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은주시청합기」, 태정관 문서, 일본 시마네현 고시 40호,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등에서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다.

- ②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1900년에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郡守)로 개칭하고 강원도를 울도군 관할로 편입시켰던 것이다. 「삼국협약지도」는 1785년 일본의 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만든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오답풀이**

- ① 이범윤은 대한제국 시기에 1902년에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되었다가 1903년에 간도 관리사로 임명되었던 인물이다. 「은주시청합기」는 일본 관리 사이토 호젠이 일본의 은주 지역을 시찰하다가 배가 표류하여 울릉도·독도를 목격하였던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은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울릉도와 송도(독도)는 고려에 속한 영토이며, 일본의 서북 국경은 은기도를 한계로 함'이라는 기록을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 ③ 미쓰야 협정은 1925년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三矢宮松]와 중국 동산성[東三省] 지배자 장웨이[張作霖]가 독립군 탄압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이다.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1905년(고종 42)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그 사실을 고시한 것이다. 그러나 시마네현 어떤 고시 내역을 살펴봐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측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④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태정관의 명으로 조선을 내탐한 사다 하쿠보, 모리야마 시게루, 사이토 시카에 등이 1870년에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총 13개 항으로 작성되었는데, 마지막 항목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된 시말'이라는 주제로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서 기록되어 있어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어윤중은 간도 문제를 둘러싸고 청의 군사 행동에 대비하여 1882년 서북경략사로 임명되었다.

**문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폐가 사용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초기에는 은 1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들었는데 그 가치는 포목 100필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 주로 외국과의 교역에 사용되었으며 후에 은의 조달이 힘들어지고 동을 혼합한 위조가 성행하자, 크기를 축소한 소은병을 만들었다.

- ① 청해진이 설치되어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 ② 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하였다.
- ③ 책, 차 등을 파는 관영상점을 두었다.
- ④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정답 ③ (2017 필기의 정석 126쪽, 대한국사 589쪽)**

☞ 사료에서 말하는 화폐는 은병(황기)이다. 1101년 숙종은 귀금속 화폐로서 일종의 청량 화폐인 은병을 법화로 주조, 유통하게 하였다. 통용 초기에 일정한 통용 가치가 보장되었으나, 뒤에 품질이 조악한 위조 은병이 나타나자 가치가 하락되었다. 또한 여타의 동전 역시 쌀·배 등 물

품 화폐에 압도되어 통용 범위가 극히 한정되었으며 화폐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충혜왕 1년에 은병의 순도를 높여 가치를 안정시킨 소은병이 주조되었으나, 이 또한 사적 주조가 성행하여 품질이 나빠짐으로써 실패하였다.

- ③ 고려는 상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경, 서경 등 대도시에 관청의 수공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적점, 약점, 주점, 다점 등 관영상점을 설치하였다.

**오답풀이**

- ① 흥덕왕 시기인 828년에 공복(장보고)에게 1만명의 병사를 주어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였다.
- ② 통일신라 지증왕은 509년 서울 경주에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 ④ 이양법은 고려 후기부터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여 14세기 초반에는 삼남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문 1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 되었으며, 의정부로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관료정치를 주창하였다. 그리고 『불씨잡변』을 저술하여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비판하였다.

- 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 ② 백성들의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 ③ 여진족을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6진을 개척하였다.
- ④ 『조선경국전』을 편찬하여 왕조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정답 ④ (2017 필기의 정석 77쪽 / 대한국사 350-742쪽)**

☞ 밑줄 친 '그'는 '정도전'이다.

- ④ 『조선경국전』은 태조 3년 정도전이 『주례』를 모범으로 하여 저술한 것으로, 성리학적 민본주의 통치 규범을 확립하였다.

**오답풀이**

- ① 1389년 경상도 도순문사 박위에게 전함 100척을 거느리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소탕하도록 하였다.
- ② 조선 세종은 설순 등에게 명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부자·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의 행실을 모아 『삼강행실도』를 만들게 편찬하게 하였다.
- ③ 세종은 최윤덕으로 하여금 4군을 개척하게 하고, 김종서로 하여금 6진을 개척하게 하여 압록강~두만강 선까지 국경을 확보하였다.

**문 13. 밑줄 친 '이곳'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1903년에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이 이곳에 도착하였다. 이주 노동자들은 사탕수수 농장, 개간 사업장, 철도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한인 사회를 형성하여 갔다. 노동 이민과 함께 사 진 결혼에 의한 부녀자들의 이민도 이루어졌다. 또한 한인합성협회 등과 같은 한인 단체가 결성되었다.

- ①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이 건설되었다.
- ②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되었다.
- ③ 자치 기관인 경학사와 부민단이 만들어졌다.
- ④ 군사 양성 기관인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정답 ④ (2017 필기의 정석 244-258쪽 / 대한국사 1099-1182-1256쪽)**

☞ 사료에서 말하는 '이곳'은 '하와이'로 1903년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많은 사람이 건너간 최초의 합법적 이민이다.

- ④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 지방총회 하에 편성된 군사 훈련 단체로, 1914년 박용만에 의해 창설되었다.

**오답풀이**

- ① 미국의 대한인국민회와 신민회 간부들이 북간도 한흥동 부근의 미개간지를 구입하여 한인촌을 형성하였다.
- ② 권업회(1911)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에 본부를 두었으며, 주요 도시에 지회와 분사무소를 두었다.
- ③ 경학사(1911)와 부민단(1912, 또는 1914)은 망명 한인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자치 조직으로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에 설립되었다.



문 14. 다음과 같이 주장한 조선 후기의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건대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半徑)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몇 천만 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물며 은하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

- ① 『우서』에서 상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재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 ③ 『임하경륜』에서 성인 남자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고 주장하였다.
- ④ 『북학의』에서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촉진하자고 주장하였다.

정답 ③ (2017 필기의 정석 177쪽 / 대한국사 826-865쪽)

☞ 사료는 『담협집』 중, '의산문답'의 내용으로 홍대용은 여기에서 지진설을 주장하였다.  
③ 『임하경륜』은 『담협집』에 실려있는 글로 모든 제도상의 개혁을 통하여 농민의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시한 국가의 경제적 재건을 시도하고 국방의 기반을 확보하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소론 출신 실학자인 유수원은 『우서』를 통해 농기구의 개량, 상업적 농업의 장려, 상업의 장려 및 상업 자본의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 ② 『반계수록』은 유휴원의 저술로 이 책에서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재분배인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 ④ 박제가는 우물물에 비교하여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하는 주장의 『북학의』를 저술하였다.

문 15. 다음 조치가 발표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관보》 호외  
짐이 생각건대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이용후생에 응용함이 급무라. 현재 군대는 용병으로서 상하의 일치와 국가 안전을 지키는 방위에 부족한지라. 훗날 징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할 때까지 황실시위에 필요한 자를 빼고 모두 일시에 해산하노라.

< 보기 >

- ㄱ.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 ㄴ. 단발령의 실시로 위정척사 사상에 바탕을 둔 의병 운동이 시작되었다.
- ㄷ. 연합 의병 부대인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 ㄹ.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 부대의 근거지가 초토화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2017 필기의 정석 238쪽 / 대한국사 1041쪽)

☞ 사료는 1907년 한·일 신협약의 부수 각서에 근거하여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군 해산 조칙'이다.  
ㄷ. 1907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되고 대한 제국 정부군이 해산되자 해산 군인들의 일부가 의병 운동에 가담하여 정미의병을 일으켰다. 해산 군인의 가담으로 무기와 병력이 크게 강화된 전국 의병 부대들은 서울 진격을 목적으로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이인영을 13도 총대장, 허위를 군사장으로 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ㄹ. 일본군은 호남 지방의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1909년 9월부터 약 1개월간 의병의 근거지가 될 만한 가옥과 촌락을 닦치는 대로 방화하고 살상·약탈을 자행하여 초토화시켰다.

오답풀이

- ㄱ.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평민 출신의 의병장인 신돌석 등이 거병하였다.
- ㄴ. 1895년 을미개혁으로 인해 단발령이 실시되자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유생층을 중심으로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이 합세하여 을미의병을 일으켰다.

문 16. 국권이 침탈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ㄴ. 일본인 메가타를 제정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ㄷ.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장악하였다.  
ㄹ.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ㄴ → ㄱ → ㄹ → ㄷ
- ③ ㄴ → ㄷ → ㄱ → ㄹ
- ④ ㄹ → ㄴ → ㄱ → ㄷ

정답 ② (2017 필기의 정석 236-238쪽 / 대한국사 1041-1042쪽)

☞ ㄴ. 제1차 한·일 협약(1904. 8. 22) → ㄱ. 헤이그 특사 사건, 고종 강제 퇴위(1907. 6.) → ㄹ. 한·일 신협약(1907. 7. 24.) → ㄷ. 기유각서(1909. 7. 12.)

문 17. 다음의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수안군에는 본래 금광이 다섯 곳이 있었다. 올해 여름에 새로 39개소의 금혈을 뚫었는데, 550여 명의 광꾼들이 모여들었다. 도내의 무뢰배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투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이익을 좇는 무리들도 소문을 듣고 몰려온다. ... (중략) ... 금점을 설치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된 곳에는 촌락이 즐비하고 상인들이 물품을 유통시켜 큰 도회지를 이루고 있다.

- ①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사패전을 부농층에 분급하였다.
- ② 일부 지방에서 도조법으로 지대를 납부하였다.
- ③ 면화, 담배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다.
- ④ 밭농사에서는 건종법이 보급되었다.

정답 ① (2017 필기의 정석 118-124-133쪽 / 대한국사 550-610쪽)

☞ 사료는 조선 후기의 광산촌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17세기 이후 정부는 허가 받은 민간인에게 광물 채굴을 허용하였다. 민영 수공업의 발달에 따라 광물 수요가 증가하자 광산 개발도 활기를 띠었다. 특히 대청 무역으로 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17세기 말 70개소의 은광이 개발되었다.

- ① 고려 시기 몽골의 침략으로 농토가 황폐화되고 유민이 많이 발생하자 정부는 개간을 장려하는 한편 지배층에게도 특정 지역의 개간권인 사패권을 지급하였다. 사패전은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농장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오답풀이

- ② 조선 후기 수확량을 지주와 작인이 절반씩 나누는 병작반수제인 타조법 일변도에서 지주와 작인 사이에 일정한 지대액을 미리 정하여 풍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바치는 도조법이 등장하였다.
- ③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확대되어 조선 후기에는 쌀·목화·채소·담배·약초 등이 널리 경작되었다.
- ④ 건종법은 밭고랑에 파종하는 방식으로 조선 후기에 일반화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문 18. 다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臣)들이 서경의 임원역 지세를 관찰하니, 이곳이 곧 음양가들이 말하는 매우 좋은 터입니다. 만약 궁궐을 지어서 거처하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금나라가 폐백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 ① 서경 천도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 ② 문종 때 남경 설치의 배경이 되었다.
- ③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 ④ 공민왕과 우왕 때 한양 천도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정답 ③ (2017 필기의 정석 168쪽 / 대한국사 757쪽)

☞ 사료에 나오는 사상은 풍수지리사상으로, 묘청은 이 사상을 바탕으로 서경 천도 운동을 벌였으며, 인종은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수시로 순행하기도 하였다.  
③ 초제는 천지와 산천에 대한 제사로 공식적인 국가 제사로 이는 도교와 관련된 것이다.

오답풀이

- ①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하여 서경 천도 운동을 일으켰다.
- ② 도선의 지리도참설에 의해 문종 21년인 1067년 양주로 불리던 서울이 남경으로 승격되었다.
- ④ “삼각산 아래가 제왕의 도읍이 될 만하다.”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고려 말기인 공민왕과 우왕 시기에 한양 천도가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문 19.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급투쟁은 민족의 내부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민족의 내쟁은 필연적으로 민족의 약화에 따르는 다른 민족으로 부터의 수모를 초래할 것이다. 계급투쟁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민족 균등이 실현되는 날 그것은 자연 해소되는 문제다. ... (중략) ... 이 세계적 기운과 민족적 요청에서 민족사관은 출발하는 것이며, 민족사는 그 향로와 방법을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지시하여야 할 것이다.

- 『조선민족사 개론』 -

- ①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를 저술하였다.
- ② 대동사상을 수용한 유교신론을 주장하였다.
- ③ 『진단학보』를 발간한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 ④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

정답 ③ (2017 필기의 정석 280쪽 / 대한국사 1284쪽)

☞ 『조선민족사개론』은 신민족주의 사학자인 손진태가 저술한 책이다.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일제 강점기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는 한편, 문헌고증을 토대로 사회·경제 사학의 세계사적 발전법칙을 수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족사를 체계화하였다.

- ③ 손진태는 1934년 청구학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진단학보』를 발행하여 실증적 역사를 연구하였다.

오답풀이

- ① 『조선상고사』와 『조선사연구초』는 신채호의 저술이다.



- ② 박은식은 유교구신론을 통해 양명학 중심의 유교 개혁과 적극적 교화 활동을 주장하였다.
- ④ 정인보는 1935년부터 1936년 동아일보가 정간될 때까지 '오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하였다.

**문 20. 고려시대 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천강변에 위치하며 도호부가 설치된 곳이다.
- ② 강동 6주 가운데 하나인 흥화진이 있던 곳이다.
- ③ 요(遼)와 물품을 거래하던 각장이 설치된 곳이다.
- ④ 요(遼)와 금(金)의 분쟁을 이용하여 회복하려고 시도한 곳이다.

**정답 ① (2017 필기의 정석 쪽 / 대한국사 319-322-590쪽)**

의주는 청천강 유역과는 관계가 없으며, 압록강 유역에 위치한다.

**오답풀이**

- ② 강동 6주 중 흥화진은 의주의 동쪽에 위치한다.
- ③ 각장은 고려시대 고려와 거란·여진족 등 북방민족 사이의 교역을 위해 설치된 무역장이었다. 고려와 거란 사이의 각장은 목종 시기에 거란의 요구로 설치되었다가 현종 시기에 거란의 침입으로 폐지되었으며, 고려와 여진 사이의 각장은 예종 시기 의주에 설치되었다.
- ④ 예종 시기 요가 약화되고 금이 요를 공격하자, 요의 지방관들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성들이 고려로 편입되었다.